

## 지난주 설교요약

### 1. 아말렉이 와서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이 누구인가를 알면 본문을 기록한 의도를 알게 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장 많은 방해한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아말렉이 이런 끔찍한 저주를 받을만큼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말렉은 이삭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특징은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 두가지 특징을 생각하다보니 한 부류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선포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들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 2.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이 심판받은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

## ■ 제목: 아말렉 ■ 성경: 출 17:8~16

기 25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중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의 험난함으로 인해 분명 지쳐 뒤쳐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에게서 값 나가는 것들을 빼앗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욕심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을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순종의 사람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조상들이 물려준 여호와 신앙을 물려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임을 말합니다. 어느 때나 어디에나 계시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예수그린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예배 안내** - 새벽기도회(월-금): 새벽 6:00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7:30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순예배: 순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립니다.
- 코로나 관련 예배 안내** - 코로나 백신 여부와 상관없이 좌석수의 70% 가능합니다.
- 2022년 표어** - "날마다 하나님께로"
- 비전헌금** - 지난주 드린 비전헌금은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립니다.
- 자녀를 위한 52일 기도 챌린지** - 3월 7일(월)~4월 27일(수). 오늘은 2주차 기도 제목이 배부됩니다.
- 1/4분기 재정보고** - 3월 20일(주일)에 있습니다.
- 묵상 성경쓰기** - 매주 빠지지 않고 쓰시기 바랍니다.
- 3/4월 매일성경 판매** \*가격: 4천원
- 청소** - 청소 지원표의 원하시는 날짜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중보기도(환우) \*\*

- 이종옥 장로 - 온전히 회복되어 의식이 돌아오고 언어기능이 돌아오게 하소서.
- 유영신 집사 - 암수술 후 빠른 회복과 치유를 위해
- 지광숙 권사 - 암수술 이후 몸이 회복되어 새벽제단을 쌓아갈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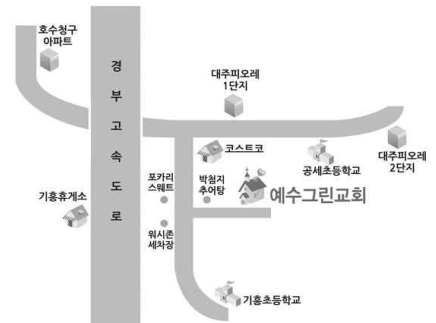
**김요한 선교사(C국)** - 목회자 아카데미를 통해 훈련받은 C국 현지 지도자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코로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기도해주세요.

### ... 예수 그린의 비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 온 세상에 바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 ... 예수 그린의 사명

예수 그린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교회임을 자각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 양육 프로그램 안내 ●

1. 새가족과정(green family)
2. 일대일 동반자과정
3. 일대일 양육자과정
4. 성서지리와 역사
5. 행복한 부부학교



●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3부, 젊은이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유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1층 새싹홀
꿈땅예배	주일 오전 11:00	3층 비전홀
파워웨이브	주일 오전 9:00	3층 비전홀
새벽기도회(월~금)	매일 새벽 6:00	본당
수요 오전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 저녁예배	수요일 저녁 7:30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본당

● 섬기는 분들 ●

- 목사** 나계수, 김대중  
**Pianist** 김효성, 박소영  
**협력선교사** 송중훈(광동성)  
 장요규(필리핀)  
 김요한(홍콩)  
 조용일(케냐)  
 오테기(인도네시아)  
 이은주(캄보디아)

나계수 목사는 명지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장로회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였습니다.  
 온누리교회와 홍콩제일교회를 거쳐 수원 온누리비전교회에서 사역하였고 2005년에 강동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예수그린교회는 2010년 7월 3일 창립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는 예배공동체, 삶이 변하는 제자양육 공동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공동체,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개척 공동체,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섬김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그린의 모든 성도들은 이 비전에 인생을 드림으로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할 것입니다.

# 날마다 하나님께로

- 예배의 회복을 꿈꾸는 교회
- 제자양육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 선교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 교회개척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섬김공동체

2022년 3월 13일 / 제 13권 11호

**새벽기도회**  
 새벽 6:00  
 월~금(매일성경)  
 레위기 강해  
 설교 : 나계수 목사

예배 인도 : 나계수 목사

주일예배 1부( 9시)  
 2부(11시)

**수요 오전예배**  
 오전 10:30  
 당분간 쉽니다.

선포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우리 왕이여 / 임재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경배와 찬양	.....	다함께
통성기도	.....	다함께
기도	김영진 집사(1부/2부)	

**수요 저녁예배**  
 저녁 7:30  
 당분간 쉽니다.

**광고** ..... 인도자  
 좋은신 하나님  
**설교** ..... 1부/2부 출 18:1~12 ..... 나계수 목사  
 “하나님의 산”

**금요기도회**  
 저녁 8:00  
 당분간 쉽니다.

결단의 찬양 ..... 나는 주님께 속한 자 ..... 다함께  
 ★헌금기도 ..... 인도자  
 ★축도 ..... 인도자

**순예배**  
 각 순별로 모입니다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합니다.  
 \* 3월 20일 대표기도 : 양정훈 집사(1부) / 민성식 집사(2부)  
 \* 3월 27일 대표기도 : 박완희 집사(1부/2부)  
 \* 3월 안내위원 : 그린케어팀  
 \* 헌금위원 : 민옥화 / 김연경